제13장 자기 몸을 닦은 효과

도 입

어떤 학생이든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당연히 성적이 오를 것이다. 그것이 공부의 효과이다.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했다면 크든 작든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하는 방식이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진심으로 성인(聖人)이 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율곡 선생은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 자기 몸을 닦는 일에도 열심히 노력했다면 마땅히 효험이랄까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죄다 헛공부가 되고 만다. 그래서 앎을 통해 실천에 도달하는 효과와 그 반대로 실천을 통해 앎에 도달하는 효과를 소개한다. 나아가 마음에서 행동으로, 얕은 데서 깊은 데로 이르는 효과 등을 아울러 소개하고, 성인(聖人)의 도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것을 종합하여 간단히 소개하겠다.

본 문

[율곡의 풀이]

공부가 지극하면 반드시 효험(效驗)이 있는지라 효과를 다음에 두었다. 앎과 실천을 극진하게 하여 겸비(兼備)함으로써 표리(表裏)가 일치하면 성인(聖人)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논어]

『주역』에 이르기를 “오직 [이치에 밝은] 군자만이 온 천하의 뜻에 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자신을 되돌아봄에 성실하면 즐거움이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율곡의 풀이]

앎과 실천은 비록 선후(先後)로 나뉘지만 실은 동시에 진행된다. 그러므로 혹은 앎을 통해서 실천에 도달하고, 혹은 실천을 통해 앎에 도달한다.

[중용]

군자는 안으로 반성해보니 병들지 않아서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보통 사람이 군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이다.

[대학]

부유함은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德)은 몸을 윤택하게 하여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하게 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인(仁)·의(義)·예(禮)·지(智)가 마음에 뿌리를 박고 있으니, 이것이 빛을 발하여 드러날 적에는 맑고 온화하게 얼굴에 드러나고 등에 넘치고 사지(四肢)에 베풀어져서, 말하여 명하지 아니하여도 사지가 저절로 깨우친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 됨됨이가 선하여 좋아할 만한 사람을 선인(善人)이라고 한다. 선을 제 몸에 참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를 신인(信人)이라고 한다. 선이 제 몸에 충실(充實)한 자를 미인(美人)이라고 한다. 충실하여 광채가 나는 자를 대인(大人)이라고 한다. 대인(大人)이면서 변화한 자를 성인(聖人)이라고 하고, 성스러워서 알 수 없는 자를 신인(神人)이라고 한다."

[논어]

공자에게는 네 가지가 전혀 없으니, 사사로운 뜻이 없고, 기필(期必)하는 것도 없고, 고집(固執)하는 것도 없고, 사사로운 자기도 없다.

[논어]

공자는 용모가 온화하면서도 엄숙하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아니하며, 공손하면서도 편안하다.

[중용]

군자는 움직이면 대대로 천하의 도가 되니, 행하면 대대로 천하의 법도가 되고, 말하면 대대로 천하의 준칙이 된다. 멀리서는 우러러보며, 가까운 데에서는 싫어하지 않는다.

[중용]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이라야 그 성(性)을 극진하게 할 수 있으니, 그 성(性)을 극진하게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성(性)을 극진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성을 극진하게 할 수 있으면 사물(事物)의 성을 극진하게 할 수 있으며, 사물의 성(性)을 극진하게 할 수 있으면 천지의 화육(化育: 생육)을 도울 수 있고,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면 천지와 나란할 수 있다.

[율곡의 풀이]

성인의 덕(德)은 천지와 하나여서 신묘(神妙)함을 헤아릴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기를 바랄 수 없을 듯하나, 진실로 공부를 쌓을 수만 있다면 이르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을 근심할지언정 할 수 없을까 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요(堯)·순(舜)·주공(周公)·공자(孔子) 같은 분들은 나면서부터 알고 편안하게 행하여 점차로 조금씩 전진하는 공부가 없었지만, 탕왕(湯王)·무왕(武王) 이하는 모두 배워서 알고 이롭게 여겨 행(行)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미 천성(天性)을 회복하는 공부가 있었던 것이다. 이들보다 아래에 있는 자들은 비록 애써서 배우고 힘써서 행하였으나, 성공(成功)한 뒤에는 다 마찬가지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인(聖人)을 볼 수 없지만, 군자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였다. 성인의 천부적 아름다운 자질은 진실로 일반 사람이 미치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나, 군자 같은 경우는 천품의 미악(美惡)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배워서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군자를 볼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군자가 쉬지 않고 전진한다면, 어찌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겠는가? 처음에 선인(善人)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천지와 나란하여 그 화육(化育)을 돕는 데 도달하는 것은, 다만 지식을 쌓고 실천을 거듭하여 그 인(仁)을 익숙하게 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성현(聖賢)이 대도(大道)을 지시(指示)한 것이 명백하고 평탄하건만,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이가 드무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

겠는가?

아, 온갖 선한 것이 성(性)에 갖추어져 있어서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공(功)을 쌓는 것은 자기에게서 말미암으니, 남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 세상을 건지고 백성을 어질게 대하는 것도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어서 누구도 감히 막음이 없다. 이러한데도 배우기를 일삼아 맑고 넓은 경지에 이르지 않고 욕심을 일삼아서 더럽고 낮은 데로 파고든다. 아! 그러니 생각하지 않음이 지나치다.

해 설

본문에서 율곡 선생은 몸을 닦은 수신의 공부에 있어서 앎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 일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고 실제적 효과가 있음을 여러 경전의 말을 인용하여 소개하였다.

성인이란 사람의 자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록 노력의 차이는 있더라도 누구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해서 그 본성을 알아 잘 발휘하기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성리학의 전제에 따라 나온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 중국의 역사를 보아도 이런 학문을 통하여 비록 현인이나 군자가 나와도 성인(성군)이 배출되어 나라가 잘 다스린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이론으로 보아도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볼 문제

1.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아는 만큼 행하기도 할까요? 보통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많을까요?

2. 선을 안으로 쌓고 쌓아서 마침내 제 것이 되어 밖으로 드러난다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사람들에게 끼치는 긍정적 효과는,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데 이를 것이다. 한편 현대 사회에는 밖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내면과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가운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3. 율곡 선생은 수기(修己) 편 첫머리에서 몸을 닦는 수신(修身) 공부는 정신을 집중하는 거경(居敬), 이치를 궁구하는 궁리(窮理), 이치를 힘써 행하는 역행(力行),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이 수신 공부에 힘쓰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누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다. 여러분은 과연 수기(修己) 곧 자기 몸을 닦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온이려 위이불맹 공이안
子는 溫而厲하며 威而不猛하며 恭而安이러다(『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子 : 아들, 큰 스승 뒤에 붙이는 말/溫 : 따뜻하다/ 而 : 접속사 '~하고'의 뜻/厲 : 엄숙하다/威 : 위엄/不 : 아니하다/猛 : 사납다/恭 : 공손하다/安 : 편안하다

*而는 순접 또는 역접으로 쓰이는 접속사. 溫而厲와 威而不猛은 역접, 恭而安은 순접으로 쓰였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온이여(溫而厲) : 온후하면서도 엄함. 공자의 모습을 형용한 말

*위이불맹(威而不猛) : 위엄이 있으면서도 무섭지 않고 부드러움

*공이안(恭而安) : 공손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대하기가) 편안하다.

해석

공자는 용모가 온화하면서도 엄숙하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아니하며, 공손하면서도 편안하다.

君子는 動而世爲天下道니 行而世爲天下法하며
言而世爲天下則이라(『중용』).

한자 풀이와 해설

君 : 임금/子 : 아들/動 : 움직이다/而 : 접속사/世 : 대, 세상/爲 : 되다/天 : 하늘/下 : 아래/道 : 길/行 : 행하다/法 : 법, 도리/言 : 말하다/則 : 법칙

*전체주어는 君子이다.

*而는 여기서 '~하면'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다.

*世는 세상, 대(代)를 뜻하나 여기서는 '대대로'의 뜻으로 쓰였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군자(君子) :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

*천하(天下) : 한 나라 전체 또는 온 세상

해석

군자는 움직이면 대대로 천하의 도리가 되니, 행하면 대대로 천하의 법도가 되고, 말하면 대대로 천하의 준칙이 된다.